



언어 영역

1. ③	2. ⑤	3. ④	4. ⑤	5. ③
6. ⑤	7. ⑤	8. ①	9. ①	10. ③
11. ⑤	12. ①	13. ②	14. ④	15. ②
16. ⑤	17. ③	18. ①	19. ③	20. ②
21. ①	22. ②	23. ④	24. ④	25. ⑤
26. ②	27. ④	28. ①	29. ④	30. ③
31. ①	32. ⑤	33. ③	34. ②	35. ④
36. ⑤	37. ⑤	38. ②	39. ④	40. ④

1. 어휘의 이해와 사용

정답 ③

‘그을다’는 ‘불에 걸만 약간 타게 하다’의 의미이고, ‘그을다’는 ‘햇볕이나 연기를 오래 쬐어 검게 되다’의 뜻이다. 따라서 ③은 위 문장과 아래 문장에 사용된 단어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③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① 들르다 :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들리다 : ‘들다’의 사동사로, ‘들게 하다’의 뜻

② 겨루다 :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다.

겨누다 : 활이나 총 따위를 쏠 때 목표물을 향해 방향과 거리를 잡다.

④ 늘리다 : ‘늘다’의 사동사로 ‘늘게 하다’의 뜻
 늘이다 :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⑤ 받치다 :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체를 대다.

받히다: ‘받다’의 피동사로 ‘떠받음을 당하다’의 뜻

2. 글다듬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⑤에서, ‘비록’은 ‘~라 하더라도’, ‘~(이)지만’ 등의 어미가 붙는 용언과 함께 쓰이며, 어떠한 조건 등을 가정으로 내세울 때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⑤을 ‘비록’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등의 인과 관계 접속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기만’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임’이라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④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기만적인’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표현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④

<보기>에 제시된 전략을 모두 충족하는 표현은 ④이다. ‘~ 하나 쌓고 ~ 하나 쌓아’, ‘더불어 있으며 더불어 느끼는’에서 반복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의 ‘~ 느끼는 것이기에……’에서 생략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을 한 채 지냈습니다.’라는 문구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지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형상화하여 구체적

인 느낌을 주는 표현에 해당한다.

①, ② 생략을 통한 여운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다.

③ 추상적인 것을 형상화하여 구체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이 아니다.

⑤ 광고 문구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4.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⑤

제시된 우화는 자기 꿈을 내세워 잘난 척을 하려다가 화를 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개구리를 통해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⑤의 경우처럼 남의 비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보완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잘난 척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5~8] 지문 해제

지방에 대한 통념과 균형적인 지방 섭취의 중요성

이 글은 지방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지방이 비만의 주범으로, 또는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 오해 받고 있지만, 모든 지방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는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지방을 섭취하는 인간의 ‘자기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건강에 유익한 지방을 분별하여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5.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③

첫째 문단에서 지방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단위 질량당 더 많은 칼로리를 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저지방 식단 다이어트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③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① 넷째 문단의 ‘시력 보호나 노화 방지를 돕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에서, 전지방은 신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과자류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여 식품 첨가물로 흔히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지방이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지방을 섭취하는 인간의 ‘자기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며, 좋고 나쁜 지방을 분별력 있게 가려 먹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⑤ 셋째 문단에서 필수 지방산은 면역계와 피부, 신경 섬유 등에 이로운 구실을 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6. 논지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⑤

이 글에서는 지방을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건강에 유익한 지방을 분별하여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는, 대상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는 ⑤가 적절하다.

7. 글쓴이의 관점 이해와 적용

정답 ⑤

글쓴이는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불포화지방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⑤의 내용은 적절한 조언으로 볼 수 없다.

8. 내용에 적절한 한자 성어 적용

정답 ①

비만 치료제는 모든 유형의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 인체에 필요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까지도 걸러내므로 인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로 인해 지방 제거를 목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였다가 시력 저하나 노화 촉진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은 상황이다. ‘교각살우’는 곧게 자라지 않은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함.
- ③ 좋은 약은 약에 쓰인다는 뜻으로,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
- ④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가 없게 되면 야박하게 버림을 이르는 말
- ⑤ 결과 안이 다르다는 뜻으로, 마음이 음흉하여 결과 속이 다름을 이르는 말

[9~13] 작품 해제

채만식, 『맹 순사』

이 작품은 해방 직후에 미온적이었던 친일파 청산 문제와 허술한 행정 체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인 ‘맹 순사’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 생활을 했던 인물로, 해방 후에 원대 복귀하게 된다. 그런데 친일 경찰이었던 ‘맹 순사’뿐만 아니라, 해방 전에 강패 노릇을 하던 일자 무식꾼부터 살인강도로 무기 정역을 살고 있던 흉악범까지 버젓이 경찰 행세를 한다. 이 소설은 이들을 통해 당시의 혼탁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9.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①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 작품으로,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직접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판결의 자신이 있었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10. 서술자의 태도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③

이 글의 서술자는 ‘맹 순사’를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은 ③의 사실시조로 ‘두터비(두꺼비)’를 제재로 하여 약한 자 앞에서는 의기양양하다가 강한 자를 만나면 몸을 사리고서도 자기 합리화를 피하는 세태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 ① 원친석의 시조로, 고려 왕조에 대한 굽힘 없는 충절과 절개를 드러낸 작품이다.
- ② ‘하여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방원의 시조로, 새로운 조선 왕조에 동참하기를 회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④ ‘귀뚜라미’를 제재로 하여 가을 밤 임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여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을 주제로 한 사실시조이다.

11. 상황 및 인물의 심리 이해와 적용

정답 ⑤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 ‘맹 순사는 나도 제발 그런 거리가 하나 걸렸으면…… 하다못해 짐 한 채 살 거리라도 좀 걸렸으면…… 하고 초조와 더불어 연방 그런 구멍을 여새겨 보았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맹 순사도 큰 돈을 뇌물로 받아 팔자를 고치려는 욕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작중 상황이나 ‘맹 순사’라는 인물의 심리와 어긋나는 내용이다.

12. 내용 이해를 통한 사회상 추리

정답 ①

‘맹 순사’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파출소에 간 부분에서, 몇 마디 테스트를 하더니 그 당장 채용이 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해방 직후 순사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는 ①은 이 글을 통해 추리한 해방 전후의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 이 부분을 통해 해방 직후의 순사의 채용은 심사 기준이 없이 허술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후반부의 내용, 즉 순사로 차려 입은 ‘맹 순사’를 보고도 행인들이 조심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고 더러는 흘겨보기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④ 쌀·나무며 찬거리를 받거나 술대접을 받는 것은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며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3. 문맥을 통한 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 ②

⑥의 ‘독직’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비행을 저지르고 직책을 더럽히는 일을 말한다. ‘이익을 혼자서 다 차지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은 ‘독식’이다.

[14~17] 지문 해제

철학의 실천적 기능

철학은 단순히 지적 만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 글이다. 글쓴이는 철학은 실천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세계에 대한 해석 자체가 세상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철학은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4. 글의 서술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④

이 글에서는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기보다는 주로 권위자의 말과 실제의 예를 인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③ ‘~ 단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마르크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글쓴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5. 반론 근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이 글의 논지로 볼 때, ㉠은 철학에는 실제적 효용성이나 실천적 기능이 없다는 뜻으로 언급한 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철학의 효용성이나 실천적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와 ㉢이다.

16. 의미에 맞는 대체어 파악

정답 ⑤

해석 행위는 현실의 변화를 의식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사물을 깨달아 아는 일이라는 뜻을 지닌 ‘인식(認識)’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7. 문맥에 적절한 어구의 추리

정답 ③

글쓴이가 강조하는 핵심은 철학의 실천적 기능이다. 즉, 철

학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의 해석이나 유희, 지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지정한 것은 ③이다.

[18~22]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적성의전』

『적성의전』은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를 그린 윤리 소설로, 도교적·불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다. 안평국(安平國)에 두 왕자가 있었는데 맏아들 항의는 성품이 고약하고, 둘째아들 성의는 덕성스러웠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성의는 서역에 가서 고생 끝에 일영주(日映珠)라는 신비의 약을 얻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이를 시기한 형 항의의 공격을 받아 눈이 멀게 되고 바다를 떠돌다 어느 섬에 표류하게 된다. 이때 피리가 인연이 되어 중국으로 가게 되고 어머니가 띄워 보낸 청조의 편지를 받고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공주와 결혼한 성의는 고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를 해치려던 항의는 오히려 죽게 된다. 그 후 성의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니 태평성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부모의 치료를 위해 집을 떠나 고생을 한다는 점에서는 ‘바리데기 공주’ 설화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눈을 뜬다는 점에서는 『심청전』과 맥을 같이 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18. 작품 상황 및 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①

‘성의’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일영주를 찾아 고국을 떠난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쓸쓸히 대나무 피리를 불다가 그 소리를 들은 중국 사신의 도움으로 중국에 간 사연,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따라서 일영주를 구하려 떠나는 어린 성의의 모습에게서 비장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그린다는 ‘가’는 적절하다. 그리고 ‘대를 베어 단저(짧은 피리)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털고 앉아’라는 내용으로 볼 때, ‘나’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성의’는 나무판에 태워져 바다를 표류하던 중 어느 한 섬에 닿게 된다. 그러므로 뱃사람에게 구조되어 안도한다는 내용의 ‘다’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편지의 내용에서 고국으로 오는 중도에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니 살피어 달라는 부분으로 보아 ‘라’ 역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 서술자의 위치 및 태도 이해

정답 ③

㉠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부분으로,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직접 노출시키고 있다. ㉢에서도 서술자의 목소리가 개입되어 있으며, 이는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20. 인물의 성격 이해와 적용

정답 ②

‘항의’는 ‘성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성의’를 걱정하는 체하고 있다. 즉, ‘항의’는 동생을 향한 검은 속내를 왕비인 어머니 앞에서는 동생을 환영하는 모습처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의’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같은 희고 속은 검은 ②의 ‘백로’가 그러한 ‘항의’의 인물됨과 가장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 ① 윤선도의 『견회요』라는 시조로,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이황의 연시조 『도산십이곡』 중 한 수로서, 젊을 때 학문에 뜻을 두었다가 수양의 정도를 버리고 벼슬을 지낸 자신을 후회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가졌으니 늦지 않게 학문의 길로 돌아와 수양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④ 박인로의 시조로, ‘감’을 제재로 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송순의 시조로, 은유와 상징의 기법을 통해 임금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21. 작품의 감상 관점 이해와 적용

정답 ①

<보기>에서는 문학을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은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①은 ‘성의’와 ‘항의’의 갈등을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과 관련지어 접근한 감상 내용이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② 작품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③, ⑤ 작품 자체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주의적(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작품 자체에 관해 연구한 후 이를 다른 작품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작품 감상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이다.

22. 말하기 방식의 특징 이해

정답 ②

‘항의’는 ‘적부리’에게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큰 상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실리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회유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완곡한 표현이라 함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표현을 말한다. 그런데 ㉠에서는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④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 ⑤ 상대방의 능력을 칭찬한 부분도 없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지도 않다. 단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23~26] 지문 해제

정보의 비대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 방안

이 글은 ‘정보의 비대칭’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룬 글이다.

글쓴이는 정보가 편중된 시장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기능이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3.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④

(라)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늘리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의 중심 내용은 ‘유용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24. 글쓴이의 관점 적용 및 사례의 분석

정답 ④

이 글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시장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시장을 사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④와 같은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25.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⑤

㉠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다. 시장이 소멸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⑤에는 판매자들이 가치 없는 제품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결국 구매자들은 이전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형편없는 제품을 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26.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②

㉠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획득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②의 경우처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벌이는 판촉 행사와는 거리가 멀다. ②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정보 제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31] 작품 해제

(가) 정호승, 『폭풍(暴風)』

자연 현상인 ‘폭풍’을 통해 인생의 진리와 역사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폭풍을 이겨 내는 나무와 새처럼 우리의

삶에 닥친 시련이나 역경을 피하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 견뎌 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 김춘수, 「분수(噴水)」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안타까운 발돋움을 하지만, 마침내 처참한 좌절을 겪는다. 이 시는 ‘분수’를 통해 안타까운 그리움으로 말미암은 발돋움과 좌절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즉, 끝없이 발돋움하게 하는 영원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다) 이형기, 「폭포(瀑布)」

이 시는 존재론적인 한계와 그 비극성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폭포’는 단순히 자연적 소재가 아닌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관념적인 이미지를 투사시킨 형상물로서,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준다.

27. 작품들의 개괄적 특징 이해

정답 ④

(나)에는 안타까운 그리움으로 말미암은 발돋움과 좌절이, (다)에는 존재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나)와 (다)에는 존재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④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28. 시적 화자의 태도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①

[A]에서는 시련을 견디고 이겨 내야 한다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의지적인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①이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꽃’이 빨갛게 피어난다는 것은 일제의 핍박으로 인한 극한 상황에서도 조국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라는 점에서, [A]에서와 같이 미래에 대한 화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9. 작품의 비교를 통한 특징 이해

정답 ④

<보기>의 시에서 호칭을 사용한 부분이 없으며, 친근하고 다정한 어조는 이 시의 분위기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정하게 호칭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④는 <보기>의 시를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① (나)는 6연으로 이루어진 시인 데 비해, <보기>의 시는 2연이라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재로 하여 아픔을 통한 재탄생의 기쁨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는 ‘-는가’, <보기>는 ‘-(으)랴’라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시련의 상황을 형상화한 표현이 드러나 있다. ‘흔들리며’ 피고, ‘젖으며’ 핀다는 표현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0. 중의적 의미의 시어에 대한 이해

정답 ③

<보기1>은 시어의 중의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며, <보기2>는 자신을 불살라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통해 자기 희생의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보기2>에서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시어는 ‘심지’로, 이는 ‘초에 쫓은 심지’와 ‘마음에 품은 심지(心志)’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31.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에서는 ‘옳지 않다. ~ 더욱 옳지 않다.’라는 시구가, (다)에서는 ‘그대 아는가, ~ 칼자옥을 아는가’라는 시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와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는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32~36] 지문 해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공간 개념

빈 공간을 건물이나 그 공간의 용도에 종속시키는 현대 건축의 공간 개념과 빈 공간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려는 전통적인 공간 개념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글쓴이는, 우리 조상들은 공간을 비어 있음, 즉 ‘없음’의 상태로 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 공간은 빈 곳이 아니라 천지(天地)의 기운, 즉 자연과 인간의 본질이 되는 힘이 존재하는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32. 중심 내용 및 글쓴이의 취지 파악

정답 ⑤

전반부에서는 현대 건축의 공간관에 대해 언급하고, 후반부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공간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감각적 아름다움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우선시(현대 건축의 공간관)하는 건축가들, 그리고 그러한 건축에 감탄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비어 있음의 가치(전통적 공간관)에 대한 성찰이 속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간에 대한 대조적인 두 관점(현대 건축의 공간관과 전통적인 공간관)을 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공간관이 현대 건축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 글이라는 ⑤가 이 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33.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③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라면 내부 공간이 클수록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간보다 수용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내용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34. 어휘 용법의 이해와 사용

정답 ②

<보기> 가.의 ‘맞히다’는 ‘맞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사동사이다. 따라서 피동의 의미를 덧붙인다는 측면으로 판단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의 ‘다르다’는 ‘갈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보기> 나.에 사용된 ‘다르다’는 ‘(생각이나 언행 따위가) 예사롭지 않은 점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④ ㉡의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며, <보기> 다.의 ‘날이 **채** 어두워지기 전에’에 사용된 ‘채’는 ‘일정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품사는 부사이다.

35. 정보의 성격 이해

정답 ④

㉠은 빈 공간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의 기운과 어울리려는 전통적인 공간관이 드러난 예이고, ㉡는 공간을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물로 채우려고 하는 현대 건축의 공간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둘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36. 문맥의 이해를 통한 내용 추리

정답 ⑤

문맥상 (가)에는 현대 건축의 공간관과 관련이 있는 진술이 들어가야 하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①, ②, ③, ④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관과 관련이 깊은 진술이다.

[37~40] 작품 해제

조세희 원작,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글은 조세희 원작의 소설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도시 빈민의 궁핍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특히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사실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소외된 도시 근로자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즉, 생존에 필요한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고용자로부터 강요되는 부당한 노동 행위, 노동 조합에의 탄압, 폭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극한적 심리 상태, 그리고 가진 자들의 위선과 사치, 그들의 교묘한 억압 방법 등 산업 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이 제시되어 있다.

37. 작중 상황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⑤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고 난 후 김불이의 아내는 절망감에 오염하고, 김불이와 그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킬킬 거린다. 또한 김불이는 달나라로 가서 릴리프트 마을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외부로부터 발단이 된 사건, 즉 철거 명령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⑤가 이 글의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38. 내용의 상징성 및 인물의 심리 이해

정답 ②

㉠에는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족에게 닥친 현실에 대해 절망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을 뿐 저항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을 닥쳐 온 불행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 측면으로 설명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39. 인물의 태도에 대한 이해와 판단

정답 ④

김불이가 “나는 남들처럼 너희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자 영수는 “저희들을 낳아 주셨어요.”라고 대답한 부분을 통해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 않으며,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는 현재 자식들이 아버지(김불이)를 짐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시한 의견이다.

40. 작품의 비교를 통한 이해 및 감상

정답 ④

<보기>에서 ‘유리병정’이 쓰러지고 깨어지며 흘린 ‘피’는 결국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병정’이 흘린 ‘피’를 ‘불이’의 ‘아내’와 ‘자식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실제의 현실은 힘들고 가난하며 참혹한 상황인데 동네 명칭은 ‘행복동’이라는 점에서, 이는 반어적 성격을 가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유리병정’의 깨짐은 김불이가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